

##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21일 6차 중앙교섭, 사용자협의회 첫 제시안 내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21일 대전 유성에서 6차 중앙교섭을 벌였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첫 제시안을 냈다. 금속노조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아쉬운 안”이라고 평가했다.



사용자 측은 노조 통일요구 ‘좋은 일자리 창출’ 과 중앙교섭요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에 관한 일부 제시안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금속산업최저임금과 이주노동자차별금지, 타임오프 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에 관한 안은 내지 않았다.

장창열 위원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어제 경총에서 무제한 파견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라면서 “여전히 많은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불법파견인지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경총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하청노동자는 이중구조에 가두자는 것이다” 라고 꼬집었다.

장창열 위원장은 “올해 중앙교섭에 노사가 고용 확대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논의하는 중에 경총의 주장은 화가 난다” 라며 “무제한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금속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를 저지하겠다” 라고 경고했다.

사용자 측은 통일요구 ‘좋은 일자리 창출’ 로 금속산업협약 제41조를 개정하자는 노조 안 1항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 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를 원안 수용하고, 2·3·4항은 의견 수렴해 추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 측은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로 문구를 수정하여 제출했다. 기존 단협안 내용 중 노조가 ‘인력분포’ 를 ‘노동자 분포’ 로, ‘채용인력’ 을 ‘인원’ 으로 문구 조정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사용자 측은 중앙교섭요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 에 관해 ‘기본 취지는 수용’ 한다고 밝혔으나, 노조가 제시한 안 중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의무 ▲정보공유, 고용 축소 부문 노동자 보호 대책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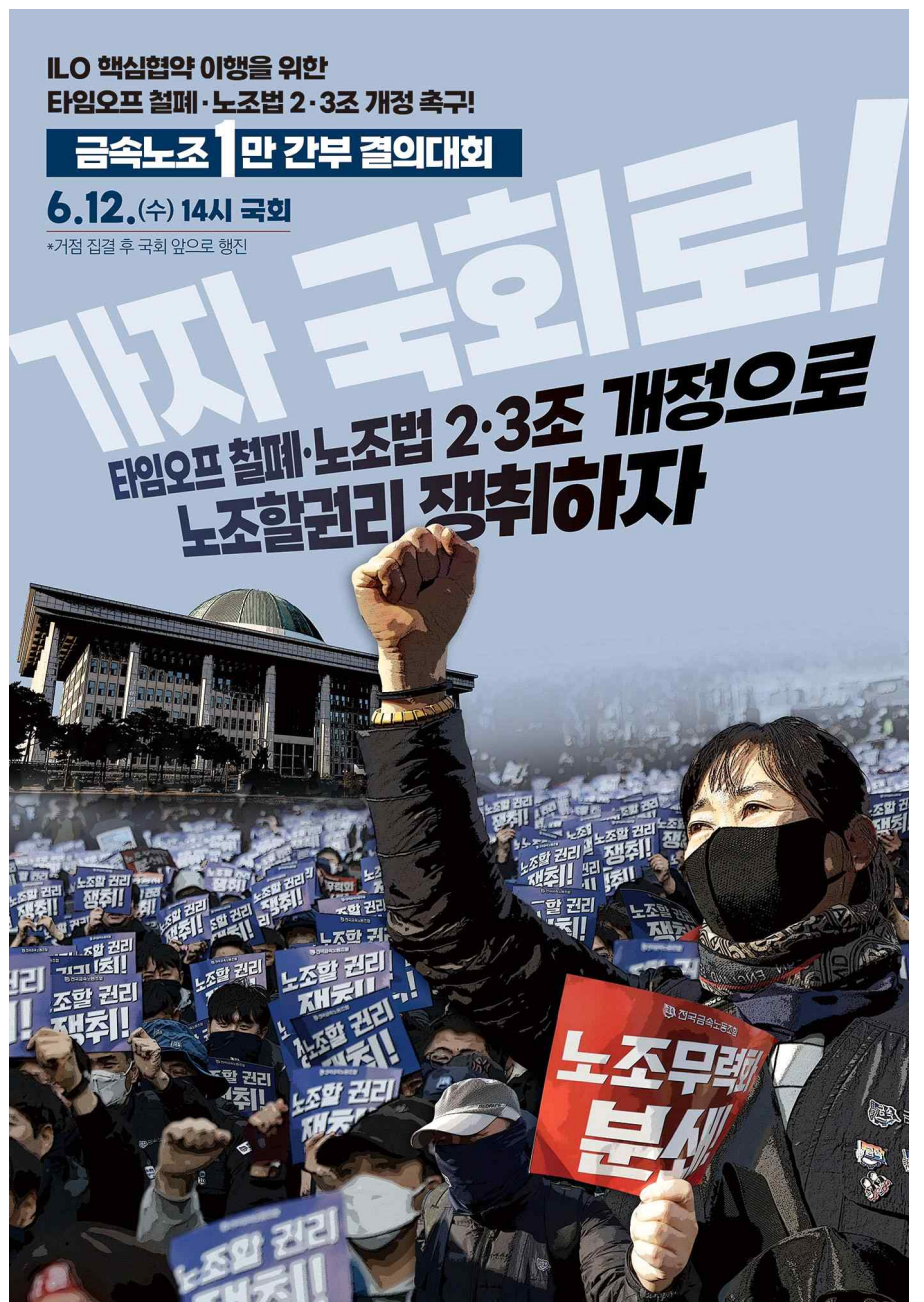
런 ▲직무조사에 따른 고용 확대와 청년·고령·여성 일자리 확대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냈다.

사실상 노조 안 중 “노사는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노동시장 정책·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며, 연내 정부에 제출한다” 라는 ‘대정부요구 제출’ 만 받아들인 셈이다.

장창열 위원장은 교섭을 마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안 취지에 공감한 것에는 감사하나, 내용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라면서 “차기 교섭에서는 아직 제시하지 않은 요구안까지 포함한 교섭이 되길 바란다” 라고 촉구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1항 좋은 일자리 창출 안이 간단하지 않다” 라며 “산업재편과 로봇이 대체하는 현실에 일자리 변동 등의 문제를 기업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일자리 확대 및 신규창출 키워드를 원칙적으로는 수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임오프 관련 요구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차 중앙교섭을 5월 28일 대구에 있는 한국업사이클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연다.



전국금속노동조합